

나주시, 안전도시 만들기 팔 걷어부친다

나주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 감염병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아 가장 불안한 곳으로 꼽혔다. 교통사고 부문에서는 4등급, 생활안전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다.

나주시가 ‘안전도시’ 조성에 나선 이유다. ‘불안한’ 도시가 아닌,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면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나주시 판단이다.

나주시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지역 안전지수’의 7개 분야 안전등급 합계가 26에 머물며 75개 기초자치단체(시) 중 57위를 기록,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19위에 그쳤다.

지역 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계량화 한 뒤 사망·사고 건수와 위해 정도 등을 계산해 1에서 5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1등급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전년도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분석해 7개 분야별로 안전 등급을 내고 있다. 7개 분야

감염병·교통사고 등 지역안전지수 하위권 벗어나기 총력 연구용역 바탕 개선 계획 수립…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 나주시 안전지수 현황(2015~2017년)

구분	교통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15	'16	'17	
등급	5	5	4	4	5	4	3	3	2	2	2	3	5	5	4	5	4	4	5

※ 전국순위(57) : 2015년 72위 → 2016년 71위 → 2017년 57위('17년 기준 하위 24%)

※ 전남순위(22) : 2015년 21위 → 2016년 21위 → 2017년 19위('17년 기준 하위 14%)

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이다.

나주시는 감염병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아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나왔다. 감염병 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5등급(2015년)→4등급(2016년)→5등급(2017년)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교통사고 부문은 5(2015년)→5(2016년)→4등급(2017년), 생활안전사고 분야도

5(2015년)→5(2016년)→4(2017년) 등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628건이 발생했고 신호위반(200건·32%), 무면허(199건·32%) 등이 많았다. 생활안전사고의 경우 3년 동안 138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 자살은 4등급, 자연재해 3등급, 범죄는 2등급이었다.

나주시는 이같은 통계를 분석, 올해 안전등급을 부분별로 1등급씩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7월에 지역안전지수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나주시는 또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에도 가입해 9개 항목에서 시민들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소방,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특별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부문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안전(신호·무면허) 캠페인 실시 ▲교통 사망사고 원인 행위 단속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니터링 및 전수조사 ▲고위험군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 등을 추진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나주=손영철기자 yacson@



학생들이 백호문학관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새해 소망 담은 족자·복주머니 만들어요

백호문학관 체험 프로그램

새해 소망을 담은 족자나 복주머니를 만들어볼 기회가 생겼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백호문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백호문학관은 오는 20일과 27일 ▲임제 문학 배우기 ▲소망 담은 족자 만들기 ▲한해 복을 기원하는 복주머니 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학관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백호 임제 선생의 문학을 자연스레 접하고 옛 선조들의 새해맞이 풍

습을 간접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고 문학관 내 문화사랑방에 비치된 1000권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문학관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들이 문학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학관 체험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체험일별로 선착순으로 모집해 미리 신청을 해놓는 게 좋다. 문의는 백호문학관(061-335-5008)으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 초·중생 60명 “미국으로 해외 문화체험 떠나요”



강인규 나주시장이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지역 초·중학생 60명이 미국으로 해외 문화체험을 떠났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초·중학생 60명은 지난 14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트리니티 사립학교 등에서 3주간 어학연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시험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로, 초등학교 6학년생 30명, 중학교 2학년생 30명으로 나뉘어 오는 2월 3일까지 현지 학생들과 정규 수업을 받는 한편,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주중에는 사립학교 정규 수업을 받고 주말을 이용, UC버클리, 더 테크 뮤지엄, 골든게이트브릿지, LA에 있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 테마공원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제적 경험을 쌓고 안목을 넓혀 미래 나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시 산하 공공청사 5년내 신재생에너지시설로

에너지 자립형 행정타운 조성 연간 5억원 비용절감 효과도

나주시 산하 모든 공공청사가 향후 5년간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갖춘 청사로 탈바꿈한다.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 어울리는 ‘에너지 자립형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게 나주시 구상이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부문 신

재생 에너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자립형 행정타운 조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건물 40개소에 태양광 발전소와 태양열 온수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지역 내 농산물가점단지 유통센터(2011년), 나주시청사(2013년), 종합스포츠타운(2016년), 농어민문화·체육센터(2017년) 등 12곳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1186kW, 태양열

248㎡, 연료전지 20kW)를 설치한 바 있다.

에너지자립형 타운 구축은 나주시 소유 공공건물에 태양광 집광판을 비롯한 발전설비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시 산하 모든 공공건물이 신재생에너지원을 갖춘 시설로 거듭나는 것이다.

나주시는 오는 2월부터 연차별 계획을 수립, 읍·면·동 복합청사 24개소와 기타 공공시설 16개소 등 40개소를 선정, 25억

6500만원(국비12억8300만원, 도비 6억4100만원, 시비 6억4100만원)을 들여 854k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태양광 패널, 온수 기능에 사용할 태양열 집열시스템(370㎡)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5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귀농체험동지와 7개 어린이집에 73kW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급전·다시전사무소에 태양광 패널(70kW)과 태양열 집열시스템(370㎡)을 설치하는 등 9곳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갖춘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허술 행정에 밀려난 주민 37명 사망 처리

건강보험 적용 못받는 등 피해 한달 뒤에야 생존 확인해 정정

나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밀려난 주민 37명이 사망 처리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

A씨는 한 달 뒤에야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확인해 이들의 사망신고를 정정했다.

그러나 주민 B(55)씨는 정정한 주민

등록 정보가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연동되지 않아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없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9월에서야 교통경찰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신고된 사실을 알았으며 일일이 각 기관에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전까지 몇 달간 피해를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진상 조사를 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주시측은 “담당자가 ‘주민등록 이중 신고’ 대상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주민등록 2개 중 하나를 사망 처리하면서 2개 모두 사망 처리해버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다,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청정 공기 배출

10분에 1번 자동 에어세척

직화구이집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YHB)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 주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 산 공 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례동) Tel.063-835-4771